

심실중격결손증 163례의 수술 치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 진 · 선기남 · 김창곤 · 김민호 · 조중구 · 김공수

전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88년에서 1995년까지 선천성 심실중격증 환자 163명을 수술치험하였다. 163명 중에 남자가 88명이었고 여자가 75명이었다. 연령은 1개월에서 41세 까지로 평균연령은 7.1세로, 1세에서 5세까지의 남녀가 각각 29(32.9%), 30(40%)으로 제일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체중은 3.48kg에서 83.5kg까지로 1~5kg; 9명, 6~10kg; 59명, 11~20kg; 43명, 21~30kg; 19명, 31~40kg; 6명, 41kg 이상이 27명이었다. 술전 Qp/Qs는 평균 1.84이고 Qp/Qs 1.5~2.0이 57(42.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Rp/Rs는 평균 0.20이고, Rp/Rs 0.25 이하가 100(76.4%)이었으며, 술전 systolic PA pressure는 30mmHg 이하에서 55(4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술전 이상 심전도 소견으로 RVH가 20(0.12%)명으로 많았다. 결손 형태는 perimembranous 105(64.4%), supracristal 51(31.3%), muscular 1(0.6%), combined 6(3.7%)이었다. 수술 방법으로는 patch closure가 94(58%)명, simple closure가 69(42%)명이었다. 결손공의 크기는 small, moderate, large로 분류해서 각각 65, 73, 25명이고, 수술 방법은 small size에서 부위에 따라 simple closure나 patch closure가, moderate size와 large size에서는 patch closure를 하였다. 또한 크기별 Qp/Qs와 Rp/Rs는 1.6, 1.9, 2.32와 0.14, 0.21, 0.31로 크기가 클수록 높았고, 동반기형과 합병증도 각각 29.2%, 36.9%, 44%와 7.6%, 15%, 40%로 크기가 커질수록 높았다. 동반기형은 57명에서 보였는데 patent foramen ovale 19, patent ductus arteriosus 11, pulmonary valvular and infundibular stenosis 8, atrial septal defect 5, aortic insufficiency 6, 기타 left SVC, valsalva sinus aneurysm, situs inversus totalis 등이었다. 술후 이상 심전도 소견은 28(0.44%)에서 있었고 incomplete RBBB가 12례로 가장 많았다. 술후 27명의 환자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중 무기폐가 제일 많았다. 사망은 9명이 있었는데 2례를 제외하고 1~4개월, 5kg 이하였고, 동반기형이 합병된 경우였다. 사망 원인으로 complete heart block, sepsis, DIC, low cardiac output syndrome 등이었다.